



## 학부제와 기초 학문

김 태 현 | 순천향대 어문학부 교수

신자유주의를 혹은 시장 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개혁이 교육 부문에서도 관철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학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부제이다. 이 제도는 약 5년 전부터 일부 대학에서 시행되다가 현재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채택되고 있다. 일부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 개혁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학부제를 수용하였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얻기 위해 또는 교육부의 눈총을 받지 않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학부제는 우리 나라 대학에서 그 주체의 자발적인 선택의 산물이 아니라, 주로 타율적으로 이식(移植)된 제도인 것이다. 이는 학부제의 도입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학부제는 그 취지와 상관없이 절차상 대학 구성원으로부터 반발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부가 주도한 학부제의 취지에 공감할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취지의 핵심은 대학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자는 데 있다. 실상 우리 나라의 대학에서는 최근까지 대학 교육의 공급자인 교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학생의 학과 혹은 전공의 선택권과 교과목

의 선택권이 거의 무시되었다. 그 때문에 이런 대학 교육의 현실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즉, 학생들이 적성과 장래를 고려할 틈도 없이 입시 성적에 따라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현실을 타개하자는 것, 대학생이 전공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덜고 학부 과정에서 좀더 폭넓은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 대학생의 전공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 여론의 요지였다.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고교생들이 무엇을 위해 대학(학과)에 가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대학(학과)을 줄속으로 선택함으로써 야기되는 후유증이 적지 않았으며, 동시에 우리 나라 대학의 학과가 지나치게 분화되고 게다가 일부 학과가 이기주의에 빠져 폭넓은 교양 교육도 심화된 전공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평판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부제가 시행된 뒤에 이 같은 취지는 전반적으로 무색해지고 그 부작용이 크게 생기고 있다. 가령, 대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전공을 맹목적으로 선호하고, 또 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이 줄어들자 수강하기가 수월한 과목이나 학점을 잘 주는 과목을 찾아 수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학부생의 소속감 절여로 사제와 선후배와 동료 사이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현상은 그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업 등에서 불리한 학문과 학점 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과목이, 소위 비인기 학문과 과목이 위축되고 심지어 도태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인문학과 기초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 학문의 위축 혹은 도태가 최근 대학가에서 가장 위험한 사태로 대두되고 있다. 그나마 기초 과학은 인기 있는 공학이나 의학과 연계할 여지라도 있고, 정부도 과학 입국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인문학에 비해 설자리가 없지 않다. 이는 결국 인문학이 학부제의 최대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하겠다.

그렇다면 학부제의 부작용으로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 학문의 위축 또는 도태에 대처할 수 있는 돌파구는 전혀 없는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이 문제가 학부제로 생긴 만큼 학부제만 폐지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일까? 이제 이 문제는 학부제의 폐지나 학과제의 부활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다. 요컨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부제냐, 학과제냐 하는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총체적 시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먼저, 대학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은 취업이나 학점 취득의 수월성에만 눈독들이지 말고 진정 자신의 적성과 장래에 어울리는 전공과 과목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한 뒤에 전공과 과목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생은 대학가에 부는 유행의 일시적인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긴 안목과 적절한 자기 분석을 바탕으로 전공과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는 지혜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런 지혜가 부족한 학생의 장래는, 눈앞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학생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하다는 것을 학생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에는 모든 곳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고 있는 터라 어느 분야에서나 그렇듯이 학문의 수명도 그

리 길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학문도 언제 비인기 학문으로 추락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며, 오히려 현재 인기 없는 학문이 언젠가는 각광받을 날이 올 지도 모른다. 따라서 학생들은 작은 이익이나 거품 같은 유행에 얽매어 학창 시절을, 나아가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도록 숙고한 뒤에 자신들에게 적합한 학문(전공)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초 학문을 교육하는 사람들의 적정한 반성도 있어야 한다. 그 동안 기초 학문에 '종사'하는 이들의 일부는 대학의 양적 팽창에 편승하여 안이하게 교육하였다는 점이 공공연히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아닌게 아니라 80년대 이후 대학은 문을 열기만 해도 대학생들이 대학을 가득 채웠고, 그래서 기초 학문에 종사하는 이들의 일부는 학생들의 장래나 교육 방법에 대한 각별한 고민 없이 오래 전부터 시행하던 교육을 답습하는 타성을 자주 보여 주었다. 말하자면 대학생의 양산 체계가 그에 어울리는 질적 관리 없이 구축된 것이다. 이는 당장 학생들로부터 불만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들은 대학 교육에 많은 학비와 시간을 투자하고도 만족스러운 전공과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학부제가 시행되자 기초 학문이 갑자기 위축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기초 학문에 종사하는 이들은 최근의 기초 학문의 위축을 학부제 탓만으로 돌리지 말고 기초 학문이 학생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근원적인 요인을 추적하여야 한다. 기초 학문이 오직 취업이나 학점 이수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초 학문의 고리 타분한 교육 방법이나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낡은 교육 과정이 그 원인인지를 면밀하게 점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오늘의 기초 학문이 위기에 직면한 까닭을 기초 학문에 종사하는 이들의 교육 방법과 교육 과정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그렇

시장 경제 논리를 기초 학문에까지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초 학문을 죽이는 일이지

나아가 삭막한 세상을 더욱 삭막하게 내 것이다.

과연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다 하더라도 혹시 그런 점이 기초 학문 위기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점이 냉정하고도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검토에 이어, 일부 기초 학문 종사자들이 이미 시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초 학문의 자기 반성과 갱신에의 노력도 이 시대에는 매우 요구된다 하겠다. 일부 기초 학문 종사자들의 교육 방법 갱신이나 연계 전공 개발이나 학생의 실용적 관심사에 부응하는 교과목에 대한 적절한 배려 등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다.

또한, 정부는 기초 학문을 진흥시키기 위한 장·단기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교육 정책을 남발하였음에도 학문 정책을 거의 수립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많은 이들로로부터 받았는데, 특히 기초 학문에 관한 정책은 전무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기초 학문을 비롯한 여러 학문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학문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이제는 주력하여야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대학 교육이 주먹구구나 편의주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합리적인 학문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선진국이 대학 개혁을 추진할 때 기초 학문을 특별히 배려하였다는 점에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기초 학문의 제도적 후원이 요즘 어디서나 강조되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도 필수적일 뿐더러 사회 구성원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저름길이라는 것을 선진국은 이미 간파하고 있으며, 또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

라에서는 기초 학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도 지원도 미미하다. 근래에는 기초 학문을 제도적으로 홀대하는 경향마저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 개혁은 기초 학문의 변신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 학문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신을 시도하더라도 실용성과 경쟁력을 중시하는 요즘 세태에서는 학생들의 소위 인기 학문으로의 '질주'를 막을 길은 뚜렷하지 않다. 대개의 기초 학문은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취업이나 인기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기초 학문에 종사하는 교수와 학생이 시류에 맹목적으로 영합하지 않으면서 기초 학문의 내실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 학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기초 학문에 종사하는 이들을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후원하는 틀도 시급히 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정부가 최근에 인문학의 진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것이 소문으로 그치지 않기를 기초 학문 종사자들은 한결같이 소망한다.

기초 학문은 글자 그대로 모든 학문의 기초이다. 그런 학문이 도태될 경우 다른 학문도 허약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기초 학문이 어떤 이유로든 한 번 무너지면 그 회복에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더구나 시장 경제 논리를 기초 학문에까지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말하자면 학문 세계에마

저 정글의 법칙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초 학문을 죽이는 일이자 나아가 삭막한 세상을 더욱 삭막하게 할 것이다. 과연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교육부가 인간다운 세상의 건설을 위한 교육의 백년 대계를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기초 학문의 홀대로 지금보다 한층 더 삭막한 세상의 도레를 재촉하는 것은 직무 유기일 뿐더러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 하겠다. 교육부가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학부제를 전후 맥락 없이 강요할 때, 그리하여 기초 학문이 위축될 때, 비인간적인 세상은 우리에게

낮선 세상이 결코 아닐 것이다. **김태현**

---

김태현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독일 지겐(Siegen) 대학 연구 교수, 『실천문학』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1988년 대한민국문학상을 수상받았다. 현재 순천향대 교수 및 인문대학장 겸 인문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저서로 『열린 세계의 문학』, 『그리움의 비평』, 『리얼리즘의 아름다움』, 『사랑의 파문』, 『문화와 교육』, 『19세기 프랑스, 독일, 러시아 문학』 등 10여 권이 있다.